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2023년 4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)

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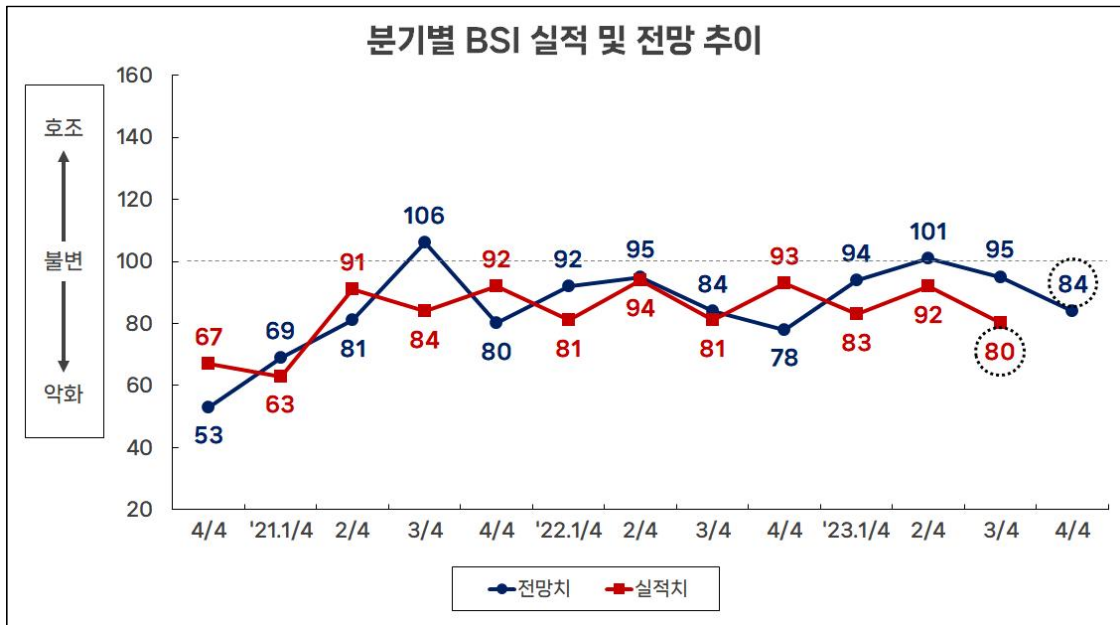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1 전반적 경기 전망

■ **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4**, 대외여건 불안요소 늘어나며 전분기대비 체감 경기 악화 전망

- 23년 3/4분기 '95' → 23년 4/4분기 '84' (전분기 대비 11p 감소)
 -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,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및 내수부진 등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 지속되며 제조업 경기 위축
 - 특히, 강달러 기조로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의 수혜를 기대한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·고유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소비위축이 이어지며 업황 악화를 전망

○ 2023년 3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'80' (전분기 대비 12p 감소)



- 응답기업, 경기침체 불안감 존재하면서 경기호전 전망 대비 경기 악화 전망이 두 배 이상
 - 직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57.2%(143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3.6%(34개사)인 가운데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29.2%(73개사)

< 2023년 4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34	143	73	250
구성비	13.6	57.2	29.2	100.0

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경영관련 전 부문에서 기준값 100 하회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

○ 매출(89)

-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對中수출 부진과 고금리,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 등 대내외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면서 매출 악화 전망 지속

○ 영업이익(90)

- 고금리·고유가 기조 및 에너지가격·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역 제조업 실적은 단기 내 회복이 불투명
- 특히, 강달러 기조로 인해 환차익을 기대한 지역기업에서도 유가급등 및 비용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부진을 전망

○ 설비투자(94)

- 대내외 어려움 확산 등 경기침체 우려로 신규투자보다 기존설비를 수리·확장하는 등 설비투자를 지연할 전망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3.2/4분기	'23.3/4분기	'23.3/4분기	'23.4/4분기
체감경기	92 →	80	95 →	84
매출액	93 →	80	96 →	89
영업이익	90 →	80	94 →	90
설비투자	100 →	91	104 →	94

3 주요 업종별 전망

■ 화학·고무, 전기·전자 및 조립금속 제조업 외에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 부진을 전망

○ 섬유(81), 의복·모피(75), 신발(67)

-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등 내수증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기조로 대외수요가 줄어들면서 의복 및 신발 등 준내구재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악화 전망
- 특히, 글로벌 소비위축으로 신발재고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신발 제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

○ 1차 금속(48)

- 경기침체에 따른 전·후방산업 위축, 에너지가격 상승과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업황 악화 전망

○ 화학·고무(104)

- 계절적요인과 함께 화학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로 업황 호전 기대감이 일부 존재하면서 경기호전 전망 지속
- 반면, 조선기자재 및 건설업 등 관련업의 업황 부진과 국제원유 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담요인 상존

○ 전기·전자(105)

- 중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상존하나, 반도체 및 전장 제품 수출 및 내수가 소폭 회복하면서 업황 호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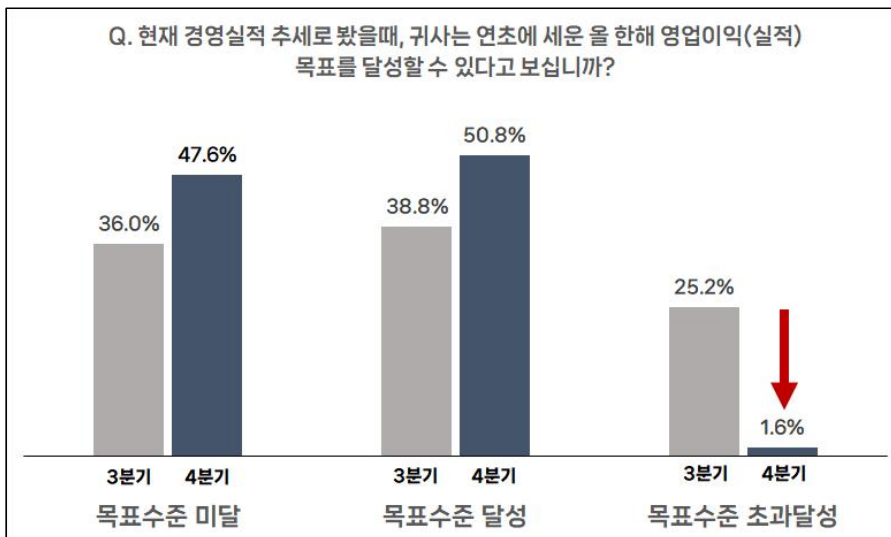
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3.2/4분기	'23.3/4분기	'23.3/4분기	'23.4/4분기
조립금속	100 →	85	100 →	105
전기·전자	75 →	80	75 →	105
기계·장비	96 →	77	96 →	77
자동차·부품	107 →	87	107 →	93
조선·기자재	110 →	90	110 →	90
음·식료품	75 →	80	88 →	73
섬유제품	63 →	50	63 →	81
의복·모피	110 →	94	130 →	75
신발제품	119 →	78	106 →	67
화학·고무	83 →	88	117 →	104
1차금속	77 →	68	73 →	48

4 기타 경영사항

○ 지역 제조기업 중 과반이상이 올해 실적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, 내수판매 부진, 해외시장 경기둔화 등으로 목표수준 미달 우려 기업비중은 증가

- 특히, 목표수준 초과달성 전망은 1.6%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25.2%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긍정적 경기 전망 감소



- 목표수준 미달의 이유로 내수판매 부진(28.3%), 해외시장 경기둔화로 수출 감소(21.5%), 환율·유가 변동성 심화(19.0%), 고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 상승(15.0%), 원부자재 수급 차질(12.6%)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음

